광주지검서 검사장 나오나 '관심 집중'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초읽기 …오늘 인사위 윤영준 광주지검 차장 등 24~25기 검사장 승진 대상 광주 출신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 승진 물망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8일 검찰인사 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승진·전보 안건을 논 다. 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는 이르면 인사위 당일, 늦어도 이번 주 중 반에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집권 2년차를 맞아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개혁에 고 베를 죄는 문재인 정부의 조직 운용방향을 이번 검사장 인사로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반열에 누가 새로 오를지가 최대 관심이다. 검사장 승진 인사 규모는 예년보다 다소 적은 6~8명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

정확한 규모는 검사장급 이상 간부의 추가 사직 이나 직책 신설 등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김강욱(60·19기·안동) 대구고검장을 시작 으로 공상훈(59·19기·대구) 인천지검장, 조희진 (56·19기·예산) 서울동부지검장, 안상돈(56·20기 ·김천) 서울북부지검장, 신유철(53·20기·김포) 서 울서부지검장, 김회재(56·20기·여수) 의정부지검 장 등 19~20기 6명이 용퇴했다.

인사 발표 전까지 추가로 사직하는 간부가 더 나

올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검사장 직위 감축은 변수로 꼽힌

1년째 공석인 대전·대구고검 차장검사는 이번에 도 검사장을 보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도 검찰 외부 인사 몫으로 남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검사장 승진 자리 가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시한 대검찰청 인권옹호부 (가칭) 신설이 이번 인사에 반영되면 검사장 자리 가 1석 늘어날 수는 있다.

검사장 승진은 연수원 24~25기에서 나올 전망

24기에서는 윤영준(56·부산) 광주지검 차장검사 를 비롯한 여환섭(50·김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조남관(53·전주)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차맹기 (52·밀양) 수원지검 1차장검사, 문찬석(57·영광)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고 흥(48·수원)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25기에서는 윤대진(54·청양) 서울 중앙지검 1차장검사, 김후곤(53·남해) 대검찰청 선 임연구관 등이 후보군이다.

특히 부산 출신인 윤영준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장'을 맡으면서 자리를 비운 5개월여 동안 검사장 직무대리를 맡아 성공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사회에서도 윤 차장검사가 이끈 특별수사팀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명예훼손 한 혐의로 전두환(87)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5·18 헬기 기총 소사를 규명하는 수사성과를 올리는 등 '5월 역사 바로잡기' 등에 크게 기여했다며 좋은 평 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여성 1호' 검사장인 조희진(56) 서 울동부지검장이 사의를 밝힘에 따라 여성인 노정 연(51·25기·서울)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이 발탁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 지검장의 사직에 따라 여성 검사장은 이영주(51·22기) 춘천지검장만 남

고검장 승진 대상으로는 호남출신 중에서 광주대 동고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박균택(52·21기·광 주) 법무부 검찰국장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연수원 기수를 뛰어넘어 파격적으로 발탁된 윤석열(58·23기·서울)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 여부도 관심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창포물 머리감기

광주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에서 지난 16일 열린 단오날 체험행사에서 어린이

후원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궐련형 전자담배 암유발 경고그림 부착

복지부, 12월 23일부터 시행

보건당국이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암 유발을 상징하는 경고그림을 부착하기로 확정했 다. 흡연의 폐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고그림의 수 위도 한층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 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 림과 문구(안) 12개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궐련 담배에 의무적으로 붙는 10종의

경고그림은 모두 새 그림으로 교체된다. 궐련형 전 자담배에 새로 부착하기로 한 암세포 사진 1종은 수 정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사용)에는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을 전달하는 그림 1종이 새로 들어 간다. 이들 전자담배에는 '니코틴에 중독, 발암물질 에 노출'이라는 경고문구가 공통으로 들어간다. 경 고그림에는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의 수술부위와 환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진이 들어간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전남 이번주도 30°C 안팎 무더위···평년보다 높아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 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7일 "고기압과 따뜻한 남서풍 의 영향으로 이번 주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고 예 보했다.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낮 최고기온은 구례 32도,

이번 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으며, 곡성 31도, 담양 30도,영암 30도, 장성 30도, 광주 29도 등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주는 아직까지 뚜렷한 비 예보 없이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다"면서 도 "다만 대기불안정 등의 이유로 일부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환경





주최 광주일보 영남실보

72 아시아문화